



봄소식 전하는 ‘구례산수유꽃축제’ 14일 열린다

22일까지 9일 간 지리산은천관광지 일원서 개최
열매까지·골든벨·시음회·떡메치기 등 체험행사

섬진강 봄소식을 알리는 제27회 구례산수유꽃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간 지리산은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산수유꽃축제는 화이트데이와 연계한 감성 테마를 강화했으며, 행사장 입구에 방문객들이 하트 모양의 메모판에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도록 '빛과 사랑의 터널(천년의 약속)'을 조성, 산수유꽃의 '영원 불멸의 사랑' 의미를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했다.

축제에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수유 열매까지 대회를 비롯해서 산수유 골든벨, 산수유 떡메치기 체험, 산수유차 무료 시음회, 산수유꽃길 걷기 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산수유 캐릭터 키링, 드림캐처 만들기, 핀버튼 만들기 체험도 새롭게 확대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제는 14일 오전 10시 산수유 시목지(1000년 전 중국 산동성 처녀가 구례로 시집오며 가져왔다

는 산수유 식재지)에서 풍년 기원제로 시작해 당일 오후 3시 주 행사장에서 손태진, 일레븐, 현진우, 이정옥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 시작을 알린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랑, 설렘, 산수유를 키워드로 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고 국가무형문화유산 농악 한마당과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무대에 올려진다. 구례군 관계자는 "화이트데이에 시작되는 이번 산수유꽃축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봄의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3월이면 산수유꽃축제가 열리는 구례군 산동면 일원은 산수유 10만여 그루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려 마을 전체를 노랑색 물들이면서 경향 각지 상춘객들을 불러 들이고 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여수, 산단 위험요소 공유...안전한 환경 조성

공장장·유관기관장 회의서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여수시는 최근 디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민이 안심하는 여수산단 조성'을 위해 '2026년 여수산단 공장장 및 유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산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회의에는 산단기업 주요 공장장과 유관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과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공장장들에게 안전한 산단 운영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업체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업체는 한화솔루션(주), 우수업체는 여천NCC(주)기초소재, DL케미칼(주), KFE 1 등 4개사가 선정됐으며, 유공자는 GS칼텍스(주) 등 10개사의 안전담당자가 수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책무이며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산단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협력적 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강화와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수업체는 여천NCC(주)기초소재, DL케미칼(주), KFE 1 등 4개사가 선정됐으며, 유공자는 GS칼텍스(주) 등 10개사의 안전담당자가 수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책무이며 단 한 번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산단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협력적 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 강화와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에 힘써,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광양조수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시

고흥, 노후 지하시설물 집중 정비...안전사고 예방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고흥군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6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노후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

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가 수립한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 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고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광양조수미' 개소

광양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광양조수미' 개소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 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시설 이용 장애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시설 개소를 축하했다. 행사는 중마장애인복지단 장애인 품목단의 식

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두부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조수미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8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573.2㎡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두부·참기름 생산 작업장과 탈의실, 자재창

고를,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상담실 등을 갖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2030년까지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6명과 훈련장애인 10명, 근로 장애인 10명이 참여해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계적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사회적 강화, 일안보 등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조수미는 광양시 눈소3길 49-18(중마장애인복지단 뒤편)에 위치해 있으며, 훈련장애인 참여와 자원봉사 등 관련 문의는 광양조수미(061-913-2020)로 하면 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산불 제로화' 보성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

초동진화·주민대피 공조체계 구축

보성군은 최근 균형 재난상황실에서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산불방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강우량 감소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등으로 봄철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보성소방서, 보성경찰서, 순천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보성군산림조합 등 산불 관계기관과 군 재난·안전·농업·환경 관련 부서가 참석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별 대응 역할과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이들은 최근 산불 발생 사례·원인 분석, 기관별 산불 예방 대책,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산불 발생 시 협조 사항,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민 대피 명령 시 대피 거부자 강제 대피 조치와 산불 가해자 검거 협조를, 소방은 산불 진화 차량에 대한 진화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확인했다. 한편은 송전선로 주변 위험 수목 제거를, 산림조



합은 산림사업장 화재 예방 관리 강화와 진화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순천국유림관리소의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진입로 확보 협조를 구했다. 군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장비와 인력 점검을 강화해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예방과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총력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th66@gwangnam.co.kr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결실

대형세탁물 처리...주민 누구나 이용

곡성군은 최근 임면농협에서 주민 편의 증진과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임면 마을빨래방'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군 관계자와 주민, 위탁 운영기관인 임면농협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임면 마을빨래방'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임면 마을빨래방'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시설로,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임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세탁실 운영과 함께 마을별 방문 수거·배달 서비스를 병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대형 세탁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세탁시설 접근성이 낮고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임면 마을빨래방'은 주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세탁 지원을 넘어 마을 단위의 소



곡성군은 임면농협에서 주민 편의 증진과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임면 마을빨래방'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제공=곡성군

통과 돌봄을 강화하는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곡성을 응원하는 전국 기부자들의 참여 속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이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구현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곡성=김유원 기자 hnnews1@gwangnam.co.kr

군은 향후 운영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다양한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마을빨래방 설치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지원사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김유원 기자 hnnews1@gwangnam.co.kr